

선배 김하성, 이정후 맞대결 '장군 명군'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를 만나러 간다.

이번 시즌 MLB에 첫 발을 내디딘 이정후는 지난 29일(한국시각)부터 시작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 4연전을 1일 마무리했다. 이정후가 MLB에서 처음 맞이하는 개막 시리즈는 '선배' 김하성(29·샌디에이고)과의 맞대결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정후와 김하성은 KBO리그에서 한솥밥을 먹은 절친한 사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고, 김하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키움에서 뛰다 MLB로 먼저 건너왔다.

이정후는 '선배' 김하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뜻한 시작을 열었다.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샌디에이고전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MLB 첫 경기부터 안타와 타점을 신고한 그의 신바람은 계속 이어졌다. 30일 5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렸고, 31일에는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며 4타수 1안타 2타점을 수확했다.

샌디에이고와 원정 4연전의 마지막 날이던 1일에는 2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3경기 연속 안타·타점을 잇진 못했다. 대신 볼넷만 3개를 골라내며 선구안을 자랑했다.

이정후, 이번엔 오타니 만난다

샌프란시스코, 오늘부터 다저스와 3연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3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 8회 초 우중월 1점 홈런을 치고 있다.

막 날이던 1일에는 2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3경기 연속 안타·타점을 잇진 못했다. 대신 볼넷만 3개를 골라내며 선구안을 자랑했다.

이정후의 활약에 김하성도 밀리지 않았다. 김하성은 1일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날리는 등 샌프란시스코

와 4연전에서 타율 0.400(15타수 6안타)를 뽑아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승패도 나란히 2승2패씩을 기록했다.

김하성과 시즌 첫 만남을 끝낸 이정후의 다음 상대는 겨우내 가장 뜨거웠던 다저스다.

샌프란시스코는 2일부터 4일까지 LA 다저스와 다저스타디움에서 원정 3연전을 치른다.

다저스는 지난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이던 오타니를 10년, 7억 달러(약 9432억원)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붙잡아 화제를 모았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는 12년 3억2500만 달러(약 4379억원)에 사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투자를 아끼지 않은 다저스는 개막 후 4승2패(승률 0.667)로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정후는 오타니와 첫 맞대결을 펼친다. 투타 결집을 하며 빅리그 최고 선수 자리에 오른 오타니는 지난해 받은 팔꿈치 수술 여파로 올해는 타자에만 전념한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타율 0.269(26타수 7안타)를 기록 중이다.

다저스에는 오타니 외에도 스타들이 즐비하다. 오타니와 함께 상위 타순을 이루는 MLB 최우수선수(MVP) 출신인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도 버티고 있다.

빅리그 최고 인기팀과 마주서는 이정후가 신바람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뉴시스



프로농구 DB 알바노, 亞쿼터 최초 정규리그 MVP 프로농구 DB의 이선 알바노(필리핀)가 역대 최초로 아시아쿼터(일본·필리핀 국적 선수) 신분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뉴시스

신안 임자 해변승마대회...12~13일

틀립축제 기간 개최...볼거리·즐거거리 제공



신안군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임자면 대광해변에서 '제3회 신안 임자 해변승마대회'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폭 200m, 길이 12km에 달하는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장애물과 지구력 경주, 방문객들에게는 승마체험의 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승마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하는 대회는 신안군의 대표 축제인 틀립축제 기간에 맞춰 개최돼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임자 대광해변은 해변 승마코스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승마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섬지역 학생들의 승마체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강축복 기자

플라카 극장골 전남, 천안에 1-0 승 '시즌 홈 3연승'

이장관 감독, 팬들 머릿속에 각인될 골



전남드래곤즈가 3월 31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4라운드서 후반 추가시간 발디비아의 크로스 패스 도움을 받은 플라카가 헤더 극장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홈경기의 강자로 알려졌다. 이날 승리로 2024 시즌 리그 2연승(승점6점, 2승 1패)에 코리아컵(16강 진출)까지 포함하면 공식 3연승

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남은 경기를 주도하면서 천안을 몰아쳤다. 계속 터질 듯 안 터졌다. 특히 아버지와 가족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발디비아의 발끝이 뜨거웠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질 가운데 추가 1분 30초경 발디비아가 천안 골문 왼쪽 측면에서 넘어지며 갈날 크로스를 올렸고, 골문 정문 바로 우측에서 달려들던 플라카가 헤더로 방점을 찍었다.

이장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특점이 많이 났으면 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을 텐데, 우리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팬들 머릿속에 각인될 골이라 생각한다. 팬들도 오늘 극장 골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었다.

/광양=조순익 기자

정광고 이유혜 전국여자역도 금메달 3개



역도 명문 정광고등학교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이유혜는 지난달 27일 열린 여자 고등부 76kg급 경기에서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으로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거머쥐며 금메달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 개별룸 단체석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가동 중흥3차 옆)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좋아요